

## 『불교학리뷰』 연구윤리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발행하는 『불교학리뷰』의 출판에서 연구 윤리와 진실성의 확보, 그리고 그를 위한 운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불교학리뷰』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와 편집 위원, 심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

제1항 (표절 행위)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자기 표절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 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으며,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해 동료나 심사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된다.
- ②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의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④ ‘자기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고 인용처리를 하지 않거나 이미 발표한 논문의 일부를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항 (중복 게재)

- ① ‘중복 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③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 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 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④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3항 (위변조 행위)

-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2 장 윤리규정

### 제1조 (저자 윤리)

- ① 저자는 총칙 제3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를 행해서는 안되며, 만약 사후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②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쪽수,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임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④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⑤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학술자료를 논문 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⑦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 ⑧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참고문헌에 제시할 수 있다.
- ⑨ 선행 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으로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⑩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조 (편집위원 윤리)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 ②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의 인적 사항을 절대로 비밀로 하여야 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및 심사와 윤리 기준에 근거하여 공평히 취급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상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제3조 (심사자 윤리)

- ① 심사자는 소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자는 개인적 관점과 견해, 해석의 차이를 떠나 학문적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 ③ 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된 저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 ④ 심사자는 평가 의견 작성시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정중하고 부드럽게 표현하여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 ⑤ 심사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⑥ 심사자는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제삼자에게 위탁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된다.

## 제3 장 윤리규정의 운영

제1조 (윤리규정 준수) 『불교학리뷰』에 논문을 투고한 저자, 편집위원,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의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불교문화연구소장, 『불교학리뷰』 편집위원장, 불교학 전공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다른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윤리위원장)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하되,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윤리규정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④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조 (윤리규정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불교학리뷰』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제보자는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③ 제보자 및 피제보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피제보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④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위해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
- ⑤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윤리부정행위가 명백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에는 경고, 투고제한, 게재 유보 및 게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